



《우리 엄마, 너 가져!》 프리델 슈미트 글·그림 | 김지연 옮김 | 어린이작가정신 | 24쪽 | 값 8,000원
 《정화손공주님》 심미아 글·그림 | 느림보 | 40쪽 | 값 9,000원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는 나만 미워해!”,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나봐”,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닌지도 몰라”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개구쟁이 아이들은 아이되기 때문에 사소한 꾸지람에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진짜 엄마를 찾아야겠다고 엉뚱한 상상을 실천에 옮기기도 하죠. 이 책에 나오는 말쑥꾸러기 꼬마 쥐 역시 진짜 엄마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장난을 쳐도 화를 안 내는 엄마, 언제나 자신을 예뻐해 주는 상냥한 엄마를 찾기 위해 백화점도 가보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신문도 뒤적이죠. 그러던 중에 엄마 코끼리에게 꾸지람을 듣고 “우리 엄마 너 가져”라고 말하는 꼬마 코끼리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코끼리 엄마도, 닭 엄마도 친절하고 따뜻하긴 하지만 내 진짜 엄마 같지는 않네요. 꼬마 쥐는 그 과정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는 바로 우리 엄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답니다. 이 책은 장난도 심하고 투정도 잘 부리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면서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똥똥한 코끼리 엄마, 풀만 먹는 소 엄마를 통해서 각 동물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죠. 엄마의 꾸지람에 잔뜩 화가 난 아이들에게 권하기 좋은 과감한 제목의 책입니다. **★**



멋 부리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궁금한 것이 많은 탓에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동화책을 펼치는 아이들. 아이들은 동화 속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그 다음엔 또 없어?”라고 물어봅니다. 무언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인지, 아쉬움 때문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이 책은 이런 아이들을 위한 속편 형식의 동화책입니다. 전편이 된 책은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옷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망신을 당한 후 후손에게 절대로 옷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충고했던 임금님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임금님의 손녀인 공주님은 그 교훈을 이어받아 무명옷만 입고 자랐답니다. 그렇지만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 없어 옷 대신 머리 모양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했죠. 그리고 어느 날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사기꾼들에게 속게 되면서 더 이상 머리를 꾸미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결말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결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공주님의 머리모양이 개성이자 생활의 활력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개성의 중요성을 말해 주거든요. 이 책은 무조건 멋 부리는 것은 사치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멋 부리는 것을 개성의 표현, 욕망의 자연스런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틀에 박힌 설교조의 교훈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우산머리, 사자머리, 쿠키머리 등 신기한 머리모양들이 어린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것 같네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멋 부리지 말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놀이처럼 자유롭게 스스로를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책입니다. **★**

김창연 기자



세상과 사람을 꼭 빼닮은 한자 친구를 만나봐요

가슴에는 아이가 먹는 젖도 있지만 '마음'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움트는 가슴. 심장이 뼉뼉뼉 뒹고 있는 하트 모양의 가슴을 표현한 글자가 바로 '마음 심심'입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모여 서로의 뜻을 주고받으면 사랑이 만들어진답니다. 옛 사람들은 그래서 주고받는다의 의미의 '받을 수受'에 '마음 심心'을 넣어 '사랑 애愛'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책은 한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면서 학교 한문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대안적인 한문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역사와 문화를 잘 담아내고 있는 아름다운 문자, 한자를 소개하는 방법도 남다른데다. 두 권의 책은 한자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를 편지글 형태로 알려줍니다. 글을 쓴 양동숙 선생님은 자신의 조카 손녀에게 편지를 보내 듯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어린이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1권에서는 몸, 하늘, 동물, 농사, 음식, 글방 등 어린이들을 둘러싼 11가지 세상의 주제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한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2권에서는 1권에서 익힌 씨앗 글자들이 어떤 글자가 되어 또 다른 글자를 만들어내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각 장마다 한자와 관련된 역사유물들을 큰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어 역사 공부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감어린 말투로 "아람아 어렵겠지만 할머니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안내가 어린이들이 한자문화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을 덜어 줄 것 같습니다. **☞**



《한자에 세상이 담겼어요》《내 몸에 한자가 숨었어요》 양동숙 글 | 심환근 그림 | 푸른숲 | 1권 136쪽, 2권 120쪽 | 값 각권 19,000원
《박씨부인전》 김종광 글 | 홍신주 그림 | 창작과비평사 | 124쪽 | 값 8,000원
《장화홍련전》 김별아 글 | 권문희 그림 | 창작과비평사 | 116쪽 | 값 8,000원

고전을 통해 현재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요

어린이들은 '고전'을 지루하고 낡은 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자를 비롯한 낯선 표현들이 무조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 소설가 두 사람이 유명 고전을 보다 재미있게 풀어썼습니다.

《박씨부인전》은 여성의 활약상이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얼굴이 못생긴 박씨 부인이 남다른 재주를 보여주면서 남편의 출세를 돕고 병자호란 때 외적을 물리치며 나라를 구해 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패배한 전쟁인 병자호란을 이야기 속에서나마 승리로 상상하고, 남녀가 평등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던 여성의 욕망과 주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초반부에 박씨 부인의 못난 외모를 설명하는 김종광 씨의 말투가 재미있습니다. '이토록 끔찍하게 생긴 용모라면 당연히 낡은 집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을지언정 어찌 남의 집에 시집보낼 수 있겠느냐'는 낡은 사고방식을 통해 당시의 여성관과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얼마 전 새롭게 각색되어 공포영화로 선을 보이기도 한 《장화홍련전》은 전처 자식과 계모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은 장화의 이야기, 몰락한 명문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결혼하게 된 여성의 이야기 등 여성의 문제, 가부장제의 문제 등 사회제도적 문제들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존의 작품들이 풀어주지 못했던 극적인 갈등을 자세하게 보여 준 김별아 씨의 섬세함이 잘 드러난 책입니다. **☞**

김청연 기자

